

질병관리본부 전국 253개 시·군·구 22만명 건강 조사

건강한 광주·전남... 음주·흡연·비만을 낮다

전남 도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담배를 적게 피우며, 몸매도 비교적 날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 시민들의 고위험 음주율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운동량은 적은 반면 흡연·음주·비만 등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253개 시·군·구(보건소)와 함께 약 22만명(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약간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41.7%), 세종(41.9%), 전남(43.4%)이 낮게 나타났다. 강원(48.6%), 제주(48.5%), 충북(47.8%)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인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 계획률(2012년 6.1%→2013년 5.4%)과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2012년 26.2%→2013년 25.0%)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흡연율은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분율을 뜻한다.

'비만율'(체질량 지수(kg/m²) 25이상인

사람의 분율)은 뚜렷한 증가 추세(2008년 21.6%→2013년 24.5%)를 보이고 있지만 전남은 예외였다. 제주(28.3%)·강원(27.2%) 인천(25.8%)이 비만을 상위 3개 시·도로 꼽혔으며, 동통한 사람이 적은 곳은 대전(21.5%)·전남(23%)·대구(23%) 등이었다.

'고위험음주율'(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광주는 음주, 전남은 비만·흡연 전국 최저 수준
(16.8%) <23%> <43.4%>
한국인, 운동량 갈수록 줄고 식습관 불규칙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년 사이(16.1%→18.6%) 오히려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14.9%)·울산(15.6%)·광주(16.8%)가 낮게 나타났으며, 강원(21.5%)·제주(19.9%)·경남(19.7%)이 높았다.

정신건강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1년 사이 '우울하다'는 느낌을 경험한 비율

과 스트레스 정신상담률은 각각 0.4%포인트(4.7%→5.1%), 0.1%포인트(5.3%→5.4%) 높아졌다.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 때문에 정신상담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각각 9.7%, 11.6%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의 6.6%, 11.3%와 비교해 4년 사이 3.1%p, 0.3%p씩 커진 수치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책 안 읽는 광주·전남

광주 1년 4권 16개 시·도 중 최하위...전남은 5.7권 15위

오는 23일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책의 날을 맞아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한해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

〈관련기사 12면〉

광주·전남 시·도민의 연간 독서량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내놓은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시민들의 연간 독서량은 4권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6위로 조사됐고, 전남 도민들의 연간 독서량은 5.7권으로 전국 15위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은 9.2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지역은 연간 독서량이 14.3권으로 집계된 울산이었으며, 이어 서울(13.4권), 제주(12.7), 경남(10.4), 대구(9.6권), 경북(9.3), 인천(8.9) 순으로 조사됐다.

평일 독서시간(전국 평균 23.5분)에서도

광주는 10.9분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남은 18.2분으로 전국 10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광주의 연간 독서율은 60.7%로, 시민 10명 중 4명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의 연간 독서율은 70.1%로 전국 평균(71.4%)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간 독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84.2%), 경남(81.3), 서울(80.9), 대구(80.7)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43.1)과 충북(46.8)이었다.

광주·전남 시·도민의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전국 평균인 30.3%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전국 최하위인 10.9%로, 시민 10명 중 1명만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이용률은 18.2%로 전국 9위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생명 살리는 응급처치술

8일 오후 광주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응급정비 관리 책임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실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계도 취했네 '담양 전통주'

추성고를 '타미앙스' 美 국제 세계주류품평회 대상

120여 년에 걸쳐 집안 대대로 전해온 비법으로 빚은 담양 추성고의 명주 '타미앙스'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주류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8일 "담양 전통주 '타미앙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주류품평회(SWSC)에서 대상인 더블골드 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14회째를 맞은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품평회는 영국 런던국제주류품평회(IWSC), 벨기에 몽드셀렉션과 함께 세계 3대 주류품평회로 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다. 이번 국제 주류 품평회에는 전 세계 70개국 1474종에 달하는 '명주'들이 출품됐으나, '타미앙스'를 넘어서는 못했다. 대상

으로 선정된 술은 세계 주류 잡지 홍보와 함께 오는 9월 중 뉴욕, 시카고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언론 홍보, 유통 바이어 상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타미앙스'는 담양 추성고를 전통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양대수(56) 대표가 120여 년째 집안 대대로 전해온 비법으로 빚은 귀밭이술이다. 타미앙스(TAMIANGS)는 '담양의 불어식 발음'이다.

타미앙스는 국내산 쌀과 구기자, 오미자 등 13가지 한약재를 넣어 100일 이상 발효 후 10여 년 이상 숙성시켜 증류한 전통 민속주로 1년에 1000여 병 정도만을 한정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치공원 청룡열차 다시 달린다

광주 패밀리랜드 1년만에

광주 패밀리랜드(우치공원)의 랜드마크인 청룡열차가 멈춰선 지 1년 만에 재운행된다. 동물원도 호랑이, 사자 등 맹수류관에 유리 관람창을 만드는 등 관람 환경을 높이기로 했다.

광주시는 8일 "우치공원에 10여여원의 시설 개선비를 투입, 청룡열차의 운영을 재개하고 맹수류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등 호남 최대 유원시설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새 단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는 우선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운행이 중단됐던 청룡열차의 수리와 안전인증을 마치고, 4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운행하고 있다. 또 5억원을 들여 호랑이와 사자 등이 있는 맹수류관을 만들고, 유리 블록 관람창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바로 앞에서 맹수들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동수 광주시 공원복지과장은 "우치공원이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선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상사 두루 알려면 신문 봐야"

한국갤럽 "국민 20%, 신문 가장 신뢰"

인터넷 보급 후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고 있지만, 신문은 고정 선호층이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신문의 날(7일)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9세 이상 872명을 대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 꼭 봐야 하는 매체'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TV를 꼽았으며 이어 인터넷(27%), 신문(21%), 라디오(3%)가 뒤를 이었다고 8일 발표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TV(41%), 신문(20%),

인터넷(19%), 라디오(5%) 순으로 답했으며, '가장 재미있는 매체'로는 TV(51%), 인터넷(32%), 신문·라디오(각 5%) 순으로 꼽았다.

신문에 대한 선호도는 30대(15%)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20~24%의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재미있는 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8%의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신문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만족(매우 만족+만족하는 편)' 응답이 43%,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는 편)' 응답이 35%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꼭과 미려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북개사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통 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